

Interview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빠져드는 팝업북



팝업북코리아 김우영 대표

팝업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팝업책을 펼치면 풍경이나 사람들이 튀어나와 평면이 아닌 3차원 입체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보다는 어린이들이 책에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팝업북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책의 내용에도 관심을 갖고 읽어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팝업북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처럼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책을 볼 때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간다'라는 내용이 한 페이지에 담겨 있다면 학교를 간다는 그림만이 한 페이지에 한정적으로 실리게 되지만, 팝업북의 경우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에 더 많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출판시장 뿐 아니라 이제는 광고 시장에도 팝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광고시장이 포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팝업을 이용해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실험적으로 들어갔던 것이 광고효과가 높아 점점 경쟁적으로 팝업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팝업북 제작을 하게 된 까닭은?

아이엠어골키퍼 라는 인기스�포츠만화를 그리는 등 만화 작가 생활을 약 20년 가까이 해 왔기 때문에 창작에 워낙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입체적인 그림에 흥미를 느껴 팝업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팝업북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 팝업북의 경우 지나치게 섬세하고 복잡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화려하게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유의 것을 소재로 팝업북을 제작한다면 외국의 것과 비교해 조금은 소박하더라도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팝업북은 무엇입니까?

팝업북코리아에서 만든 팝업북은 국보1호 송례문, 공룡 팝업북, 타지마할과 같은 문화유산 시리즈, 명작 동화 팝업북 등이 있습니다.



팝업북코리아에서 제작한 대표 팝업북인 공룡시대 강습을 위한 교육모습과 공룡시대 완성책자.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공룡시대> 팝업북은 1년동안의 준비작업 끝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공룡의 왕인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최초의 코끼리인 맘모스, 세이스모사우루스, 시조새로 구성된 공룡팝업북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입체감있는 공룡을 만나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양쪽 페이지 옆면에 펼침의 기능이 있어서 공룡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재미있게 표현해 어린이들에게 인기입니다. 현재 매주 일요일마다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공룡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팝업북외에도 외부에서 의뢰하는 팝업북도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팝업북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작업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뿐 아니라 유명화장품업체인 랑콤, GS건설, 전라북도 등의 팝업북도 제작했습니다.

팝업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팝업북을 기획, 제작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팝업북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팝업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교보문고, 문화센터, 문화회관 등에서 유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팝업 만들기' 이벤트를 열어 팝업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팝업북을 만드는 과정이 꽤 어려운데 어린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만드는 방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끝까지 완성시키려 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팝업북을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에 부모님들도 좋아하십니다.

팝업북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팝업북을 생산하기 위해 처음에는 인건비와 제작비용이 저렴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중국 공장에서 다른 나라의 수많은 팝업북이 생산되는 것을 보았는데, 외국에선 레벨(난이도)별로 팝업북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평소 화려하고 어려워 보이는 팝업만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화려한 것보다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팝업북을 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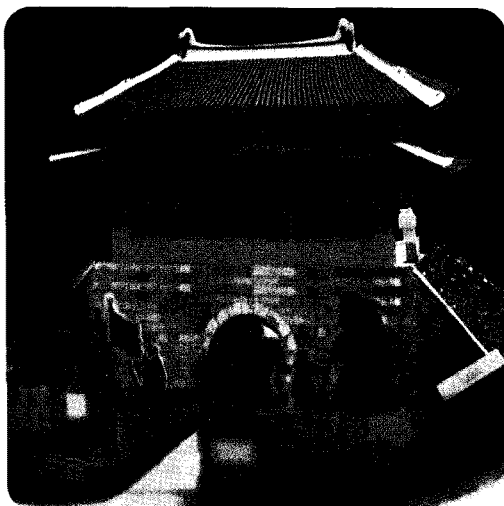
또한 인쇄의 경우 예전에는 중국에서 제작했으나 지금은 제일특수인쇄 등 우리나라 인쇄사에서 팝업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해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고, 작업기간 및 배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팝업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승례문과 같은 우리나라 국보를 팝업북으로 제작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싶습니다. 팝업북도 단권보다는 시리즈로 제작해야 유리합니다. 이제 승례문을 만들었으니 하나하나 우리나라의 국보들을 팝업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뿐 아니라 유네스코문화유산을 팝업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첫 번째로 타지마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팝업북을 제작해달라는 의뢰가 많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팝업북 제작은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아쉽습니다. ↻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



팝업북코리아에서 제작한 우리나라 국보1호인 승례문 팝업북

팝업북코리아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12-19 동성빌딩 201호
전화 070-8261-6174 팩스 02-704-4754
홈페이지 www.popupbook.kr